1. 2016 시사토론

콜롬비아 국민들은 왜 평화를 거부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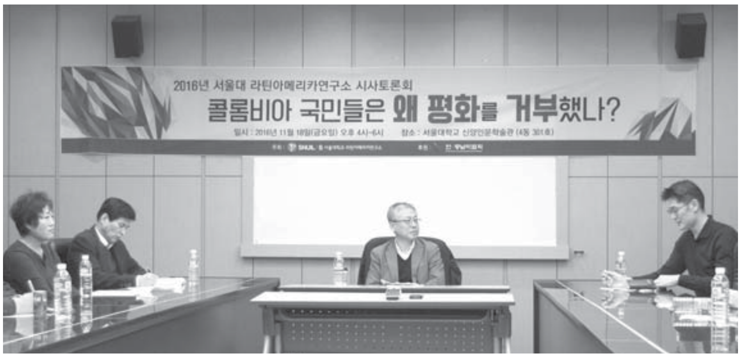
- **일시: 2016년 11월 18일 금요일**
- **장소: 서울대학교 신양인문학술정보관 세미나4실**

사회

김기현(선문대학교 스페인어중남미학과 교수)

토론

송기도(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재학(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
차경미(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교수)



김기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가 주최하는 제4차 시사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는 칠레를 했었고, 2차는 브라질, 3차는 쿠바, 그리고 이번에는 콜롬비아를 주제로 하게 됐는데요. 우선 토론자 선생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콜롬비아와 인연이 많은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송기도 교수님 먼저 하시지요.

송기도: 콜롬비아와 인연을 맺은 건 노무현 정부 때 2년 반 정도 콜롬비아 대사로 근무했던 인연이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한국전쟁에 약 5천 명의 군인과 함정 1척을 파견했던 나라로 한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당시 우리나라와 외교 관계가 강화되는 시점이었고 제게는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국가입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우리베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맞아서 취임식장에 직접 갔었는데 첫 번째 취임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제가 콜롬비아에 있었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인 시기에 임기를 마쳤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콜롬비아를 지켜봐 왔고요.

김기현: 아무래도 우리베 정부 때 콜롬비아에 계셨으니까, 우리베 정부의 대 게릴라 정책에 대해 많이 말씀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이재학 교수님도 콜롬비아와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학: 최근에는 유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 주춤하지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콜롬비아의 국가 포럼에 초대되어 갔었습니다.

한번은 콜롬비아 대통령, 우루과이 대통령 등 모두 왔었는데 거기에 산토스 대통령을 비롯해 노동부장관, 상공부장관, 상하원의원들도 참석했고요. 한번은 중소기업포럼이었는데 그때도 대통령이 참석했었고 상공부장관과 중소기업인 약 1,500명이 참석했었습니다. 또 다른 포럼은 콜롬비아의 상공연합회 콘페카마라스(Confecamaras) 포럼으로 그때도 대통령, 장관, 대기업 경제인 등 약 500여명이 참석했었는데, 제게 요구한 주요 주제는 이러했습니다. 콜롬비아 우리베 대통령에서 산토스 대통령으로 이어질 때까지 국가의 주요 관심사가 생산성향상(Transformación Productiva)이었는데, 1차 산업 중심의 콜롬비아를 한국처럼 2차 산업 중심의 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국가개발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요. 그리고 콜롬비아 경제에서 비공식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비공식 부문의 규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이었어요. 결국 첫 번째는 생산성향상, 두 번째는 비공식부문에 관한 논의였죠. 오늘 시사토론 소주제와 관련해서, 겉으로는 좌익이고 사회주의 혁명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경제적인 이권이 걸려있거든요. 무장폭력단체들이 지하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콜롬비아의 국가개혁 과정에서 몇 가지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당시 상공부장관인 그라나도스(Granados)를 비롯해 상원의원들과도 만나곤 했습니다. 또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관련해서 FTA에 반대하는 콜롬비아 상하의원들이 한국에 왔을 때 저희 고려대 스페인·라틴아메

리카연구소에서 한-콜롬비아 FTA를 왜 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득하는 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콜롬비아가 석유생산량을 증산하고 플랜트나 송유관 건설 등을 건설하려고 하면서 한국과의 협력을 모색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한동안 콜롬비아를 열심히 드나들었죠. 그런데 유가가 하락한 이후에는 모든 게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콜롬비아의 관계도 유가가 올라야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합니다.(웃음)

김기현: 간단하게 자기소개만 부탁드렸는데, 자세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나중에 그런 쪽으로 많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차경미 교수님 오셨습니다. 명실공히 한국의 콜롬비아 전문가이시고 제가 알기로는 게릴라 FARC(Fuerzas Armadas Revolucionarias de Colombia)에 납치된 적도 있다고 들었는데,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차경미: 저는 콜롬비아 국립대학교에서 현대사를 전공했는데요. 저는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고, 제가 학위를 마친 게 95년이었는데요. 당시에도 참전용사 중에 얼마 안 되는 생존해계신 분들과 인터뷰를 하곤 했지요. 납치 이야기는 논문을 마치고 여행을 하다가 생긴 일입니다. 우연찮게도 FARC가 활동하는 지역으로 여행을 가게 됐는데요. 말이 씨가 된다고, FARC가 활동하는 지역에 왔는데 못 만나고 가면 섭섭하지 않겠냐고 같이 간 후배랑 농담을 했었는데, 진짜 FARC에 납치됐죠. 물론 하루 정도에 불과했는데, 그래서 콜롬비아 게릴라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 토론에 열심히 임하려고 합니다.

방청석(박병규): 하루 정도 납치가 돼서 같이 생활하셨어요?

차경미: 납치돼서 산속에서 잤는데, 헤어질 때 우리의 가치가 하루밖에 안 되냐고 했어요. 콜롬비아에서 에콰도르 국경을 넘어가는 지역에 산아구스틴(San Agustín)이라고, 고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우리의 경주 같은 곳인데요. 또 커피 재배지이기도 하고요. 그 안데스 산맥에서 넋 놓고 당나귀를 타고 세 시간을, 정말 장관이었어요. 그걸 보고 정말 잘 왔다고 생각했는데 잠시 후에 상황이 역전돼서 내가 왜 여기에 왔을까 싶었어요. 저하고 후배 한 명하고 나머지는 외국인들, 이렇게 7명이 에콰도르로 여행을 가는 중이었는데 차에 게릴라가 올라와서 쪽지를 나눠주더라고요. 너무나 순수한 얼굴에 깨끗하고 아이들 같았는데 쪽지에 혁명의 그 날까지 피를 흘리겠다고 씌어있어서 "네가 게릴라야?"라고 물었더니 게릴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7명이 내렸는데 백지를 주면서 에콰도르에서 콜롬비아, 콜롬비아에서 에콰도르로 넘어가는 버스 운전사에게 우리 명단을 주면서 경찰에 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산속으로 끌려 들어갔어요. 콜롬비아에 게릴라가 머무는 이유 중 하나가 밀림이 있고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리적인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타잔〉에서나 봤던 밀림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게릴라 FARC의 주 무대이자 "플랜 콜롬비아(Plan Colombia)"를 통해서 미국의 군사공격이 시작됐던 카케타(Caquetá)라고 하는 지역입

니다. 이런 경험이 지금은 제가 콜롬비아 유학하면서 가장 자랑스러운 경험 중 하나가 됐어요. 어쨌든 오늘 재밌게 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평화협상 이전의 콜롬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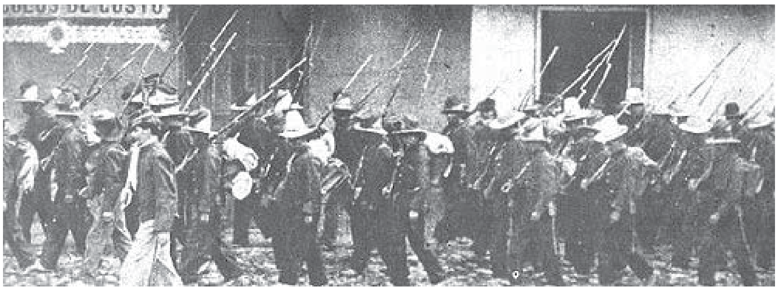
콜롬비아에는 왜 폭력이 난무했는가?
콜롬비아에서는 왜 게릴라 집단을 제거하는데 실패했는가?

김기현: 네, 감사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평화협상 이전의 콜롬비아의 상황, 내전 상황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콜롬비아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폭력, 폭력의 문화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Gabriel García Márquez)의 『백 년의 고독』도 결국 그런 폭력을 소재로 삼고 있고요. 그러면 도대체 그 폭력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지, 왜 폭력의 문화가 난무하는지, 이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경미 선생님 먼저 말씀해주시지요.

차경미: 네, 콜롬비아 폭력의 역사는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달리 콜롬비아는 양당제를 중심으로 한 문민우위정부를 유지해왔었습니다. 1899년부터 1902년에 자유–보수 양당의 갈등으로 천일 전쟁이 발발하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유사하게 소수 엘리트 중심이었고 엘리트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콜롬비아는 특이하게 20세기 초반에 국

가발전계획을 추진하면서 가장 낙후한 불모지였던, 하지만 지금은 콜롬비아 경제의 70%를 이끌어가는 지역인 안티오키아(Antioquia) 지역에 커피 재배를 장려하고 이를 통해 1차 산품 수출 정책을 추진했어요. 당시 정부는 커피 재배를 조건으로 농민들에게 불모지를 헐값에 나눠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농민들이 연장을 들고 개척을 시작하게 되죠. 이것을 안티오키아 식민화(Colonialización de Antioquia)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농민 중에서도 토지를 어느 정도 소유할 수 있는 농민들이 생기고요. 동시에 지주들과 농민들, 정착민과 이주한 농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농민자위군이 형성되거든요. 그 속에서 지주는 지주 나름대로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병대를 결성하고, 이러면서 무력이 자기의 권리를 혹은 자기의 신변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종의 도구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에 1단계적으로 농민자위군을 중심으로 단순하게 자신의 재산과 신변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무장세력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다음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자유–보수 양당의 갈등이 지속되는데 1946년 대선에서 보수당이 16년 만에 정권을 장악하고 무력을 통해 자유당 세력을 억압하는데, 이에 대한 반발로 자유당 지식인을 중심으로 무장세력이 등장한 것이 콜롬비아 게릴라의 시작이죠. 물론 1920년대에 붉은 우체부라고 해서 FARC의 전신이 있기는 한데, 세계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좌파 성향의 무장 세력이 생기긴 하지만 무력충돌을 감행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1946

년 자유-보수 양당의 갈등 속에 자유당 지식인을 중심으로 동부 평원에서 게릴라를 조직하게 되죠. 1953년에 군부정권이 들어서면서 무장해제를 하지만, 공산당파 게릴라들은 그대로 남아서 무장을 고수하고, 이들이 1959년 쿠바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1964년에 오늘날의 좌익 무장단체인 FARC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1965년에 ELN(Ejército de Liberación Nacional: 민족해방군)이라는 무장세력도 생기고요. 1970년대 들어서는 M-19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한 중산층 게릴라가 형성되고, 이어서 농민, 킨틴라메(MAQL: Movimiento Armado Quintín Lame 킨틴라메무장운동)라고 하는 농민조직이 형성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양당의 갈등이 형성되면서 자유와 보수 양당의 엘리트들이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평화를 유지하자는 의미로 1958년부터 16년간 국민전선(Frente Nacional)을 형성하게 되죠. 양당 엘리트들이 양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3당이나 양당을 위협하는 세력이 등장하는 것이 철저하게 봉쇄되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1970년대부터 FARC, ELN, 그 외 게릴라 단체라든가 아니면 소수 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단체들이 생기게 되었어요.FARC가 1만 명 이상의 대원을 확보하기 시작한 것도 국민전선 정권이 등장하면서부터예요. 그래서 콜롬비아의 폭력의 역사는 자유-보수 양당의 갈등에서 비롯됐고 양당 엘리트의 정치협약인 국민전선을 통해 공고화되었으며, 쿠바혁명 등 외부적인 영향을 통해서 확산, 팽창되



콜롬비아 천일전쟁(1899–1902)

었지요. 그것이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달리 양당이라고 하는 문민정부의 전통을 유지했으나, 결국엔 자유–보수 양당의 엘리트들의 정체체제를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제3세력을 포용하지 않는 정치, 배타적 민주주의가 나머지 세력에게 무장이라는 선택만을 남겨주었다는 점. 이것이 콜롬비아 폭력의 역사이지 않나 합니다.

김기현: 예, 콜롬비아의 역사를 죽 얘기해주셨는데, 그러면 왜 유독 콜롬비아에 폭력이 난무하는지, 왜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서 콜롬비아에서만 폭력이 그치지 않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기도: 차경미 교수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콜롬비아의 역사에 대해서. 그런데 한 가지, 중남미가 1824년이 되면 다 독립을 하거든요, 물론 약간의 시간차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대게 1860년대, 70년대까지 카우디요(Caudillo)가 지배하게 되는데, 다시 말하자면, 페닌술라레스(Peninsulares–스페인 본토 출신)가 빠져나가면서 정치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되고 거기에 카우디요가 들어서

면서 폭력적인 상태로 바뀌게 되죠. 콜롬비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유와 보수, 두 세력의 대립이 강했는데, 자유와 보수가 정권교체를 하기도 했지만, 그들 간의 대립은 지속적으로 첨예했어요. 자유당과 보수당이 종교나 토지나 상공업, 이런 문제를 놓고 격돌하기 시작하는데, 1차적으로 터진 게, 차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1902년의 천일 전쟁이었고, 그게 저는 콜롬비아 폭력의 뿌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0만 명이 죽은 엄청난 살육이 콜롬비아 비극의 시작이고, 그리고 또 한 번, 40년 후에, 보고타소(Bogotazo)라고 해서, 자유주의 급진 대통령 후보가 암살당함으로 인해서 20만 명이 죽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게 계속된다고 봐요. 그 앙금이 금방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치유가 되고 덮어져야 하는데, 계속해서 보수파와 자유파의 갈등이 지속되는 거예요. 1958년에 보수당과 자유당이 군의 정치개입을 막기 위해서 국민전선을 만들었지만 20년 가까이 자기네들끼리 짝짜꿍한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제3의 세력들, 진보세력들이 산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자유당과 보수당 사이의 폭력은 없어졌지만, 소외된 사람들의 폭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것이 계속 반복된 거죠. 제가 대학에 다니던 70년대에는, 60-70년대에 중남미라 하면 군의 정치개입, 쿠데타로 날이 지새는 대륙으로 신문에 나왔어요. 자고 일어나면 이번엔 볼리비아, 다음엔 에콰도르, 다음엔 엘살바도르. 그렇게 거의 매일처럼 나오는데, 쿠데타가 없던 나라가 몇 개 있었죠. 하나는 멕시코, 거기는 혁명을 통해

서 흡수가 됐으니까 쿠데타가 없고, 다음은 코스타리카, 거기는 군인이 없으니 쿠데타가 날 수가 없고요, 그다음이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였어요. 베네수엘라는 푼토피호협정(Pacto de Punto Fijo)이 부정부패를 낳았고, 그래서 차베스의 혁명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되죠. 콜롬비아의 폭력도 결국엔 국민전선에서 유발된 거라고 생각하고, 폭력이 조금씩 형태는 다르지만 지속되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기현: 한 번 생겼던 상처가 치유되고 아물지 못하고 계속 되풀이되면서 더 커졌다.

송기도: 예, 아물지 못하고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기현: 예, 그런 면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읽은 글에, 2009년에 방한한 미국의 콜롬비아 전문가 찰스 버키스트(Charles Bergquist) 워싱턴대 교수가 한 얘기를 들어보면, 콜롬비아의 폭력의 뿌리가 경제적 요인에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19세기 말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1차 산품 수출로 굉장히 발전했는데, 콜롬비아는 20세기 초반까지도 발전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적 봉건주의 경제가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20세기 중반 들어서 커피 수출 경제가 굉장히 활발히 진행됐는데, 이것도 대형 플랜테이션이 아니라 지역별, 작은 가족 단위의 농업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고 계속 지역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갈등 구조가 해소되지 못했다는 설명을 하는 걸 들으면서 이것도 한 요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지요.

이재학: 다 연관된 얘기인데요. 왜 콜롬비아만 유독 20세기 중반까지 자유당과 보수당이 지속됐고, 유독 콜롬비아만 1차 산업의 수출구조로 일찍이 편입하지 못하고 또 후에도 커피 경제가 지역적이었고 통합이 되지 못한 형태로 발전했는지의 가장 큰 원인은 일찍이 독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콜롬비아는 군사쿠데타가 없었고 독재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역 간의, 대지주, 크리오요의 갈등이 통합되지 못하고 자유당과 보수당의 갈등이 이어져 20세기 중반까지 왔던 것이지요. 그리고 콜롬비아는 독립 이후에 1850년부터 1998년까지 정확히 7번의 내전이 있었거든요. 다른 지역보다 많은 내전이 있었고 이로 인해 폭력성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었지요. 지역 간의 통합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20세기 중반까지 내전 양상이 지속된 것이고요. 폭력성이란 건 사실 원주민 문화에서부터 내재되어 있던 것인데 독립 이후에 독재자가 출현하지 않으면서 카우디요 간의 갈등이 조정되지 않았고, 그게 분출이 됐다고 보는 거고요.

콜롬비아의 대표적인 무장 게릴라 집단인 FARC(왼쪽)와 ELN(오른쪽)

김기현: 그에 연결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좌파 게릴라가 남아 있는 곳이 콜롬비아잖아요. 페루 같은 곳은 후지모리가 게릴라 집단인 "빛나는 길"을 강력하게 몰아붙여서 뿌리 뽑았잖아요. 잔재가 남아있다고는 하지만요. 그런데 콜롬비아에선 아직까지 뿌리뽑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 콜롬비아는 좌파 게릴라를 뿌리 뽑지 못하는지, 왜 게릴라가 아직까지 지속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죠.

차경미: 마약이나 게릴라 문제는 미국의 대중남미 대외정책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었느냐에 따라서 조정되었던 것 같아요. 1980년대 들어서 동구권 붕괴와 함께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이나 전략이 반공주의에서 마약정책으로 변하였고, 미국은 중앙아메리카나 게릴라가 있었던 국가에 평화협정이라든가 좌파 게릴라와의 협상을 유도해 나갔어요. 이런 가운데 많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는 좌파 게릴라들이 평화협상을 하거나 무기를 반납하는 등의 형태로 게릴라 활동을 중지한 반면에, 콜롬비아의 경우는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마약 범죄단체와 연동하는 형태로 변화했죠. 그리고 아까 콜롬비아의 폭력이 경제적인 문제와 연관되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앞서 말했듯이 안티오키아의 농민들에게 국가가 토지를 무상으로 지원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커피를 생산하는 소농이 생기고 농민자위군이 형성되면서 콜롬비아의 폭력, 그러니까 무력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폭력의 문화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경제적인 요인에서 폭력의 역사의 뿌리를 찾는 것도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해요.

송기도: 저는 중남미에 게릴라가 만들어질 수 있는 요인 중 하나가 쿠바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1959년 1월 카스트로의 혁명이 성공하고 그 여파가 다른 여러 나라에 미쳤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예로 페루의 센데로 루미노소(Sendero Luminoso 빛나는 길)는 70년대, 80년대에 매우 융성하였는데요, 90년대에 후지모리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강경한 대게릴라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었지요. 한편 콜롬비아의 경우 좌파 게릴라들이 우리베 대통령의 강경책에 굴복하지 않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계속하게 되었죠. 우리베 대통령의 강경책이 한계를 드러내자 산토스 대통령이 정부의 대게릴라 정책의 방향을 바꾼 것이고요. 그리고 콜롬비아에는 마약 원료가 생산되어요. 마약이 콜롬비아 제1 산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커피보다 많이 재배됐단 말이죠. 마약이 많이 팔릴 적에는 메데인의 강아지도 달러를 입에 물고 다닌다고 했어요. 그리고 콜롬비아에 다녀오신 분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중남미 여느 국가와 달리 콜롬비아에서는 현금 달러가 환전할 때 별로 대접을 못 받아요. 달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블랙마켓'에 돌아다니는 달러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현금을 가져가면 적게 주는 현상이 콜롬비아에 있죠. 마약이 산업이 되면서 마약과 관련한 검은 달러가 풍부해진 거죠. 그러다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콜롬비아의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커피를 재배하는 것보다 게릴라가 주는 씨를 받아서 코카인을 재배하면 훨씬 빠르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농민들이 무슨 이데올로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걸 주면 그냥 합니다. 3-4년이면 그냥 쑥쑥 자라거든요. 두 배, 세 배의 수익이 생기는데 그걸 왜 안 하겠어요. 게릴라들은 이렇게 재배한 마약을 팔아서 재력을 키우고 이 재력으로 사람들을 더욱 끌어들이는 거죠. FARC이 많을 적에는 3만 5천명까지 됐었어요. 시골에 살고 있는데 직장에 취직도 안 되고 농사지어봐야 별거 없는데 게릴라에 들어가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월급주고, 괜찮은 조직이잖아요. 결국, 페루의 경우와 달리, 콜롬비아의 경우 정부가 마약조직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 거죠. 브라질이나 우루과이 같은 경우는 게릴라가 굉장히 작았으니까 비교할 수 없고요. 중앙아메리카는 또 다른 문제고요. 그래서 정부가 게릴라를 이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게릴라가 마약자본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세력과 기반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인해서 정부에 맞서는 상황까지 갔었죠. 파스트라나 대통령(Andrés Pastrana, 1998-2002) 때 FRAC하고 평화협상을 하자고 해서 대통령이 일정을 정했는데, FARC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1-2년만 지나면 우리가 정부인데 무슨 협상이냐고요.

김기현: 그러니까 쿠바혁명 이후에 라틴아메리카에 생겨난 게릴라들이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에 동구, 소련 붕괴 이후에 대부분 사라지는데, 마지막까지 남은 게 페루와 콜롬비아의 게릴라였다. 그런데 90년대에 후지모리는 페루에서 그걸 다 강력히 소탕한 반면, 콜롬비아는 우리베 대통령이 들어와서 강경하게 밀어붙였음에도 폭력의 양상이 오히려 더 심화되었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

도, 콜롬비아가 52년 동안 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22만 명이고 자기 마을을 떠나서 피난을 가야 했던 사람이 700만 명인데, 우리베 집권 기간 동안만 사망자가 1만 5천 명이고 강제 이주자가 3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베 집권기에 오히려 폭력이 심화됐다는 얘기에요. 그런 요인을 두 분 선생님께서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 콜롬비아는 게릴라가 마약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재정적으로 탄탄하고, 그러다 보니 정부가 이길 수 없었다.

송기도: 그런데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베가 했던 건 국가폭력이거든요. 그런데 국가폭력에 민병대를 이용해서 폭력을 행사한 우익 백색테러가 있었어요. 물론 좌파 게릴라의 폭력도 있었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다른 국가의 경우에 오히려 국가의 백색테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김기현: 우파 무장집단의 존재,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콜롬비아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차경미: 그러니까 2002년에 우리베가 정권을 장악해서 게릴라에 대한 강경책을 선택하잖아요. 물론 미국의 "플랜 콜롬비아"를 통한 대폭적인 군사, 경제적 지원이 있었는데, 제가 콜롬비아를 여행했을 당시에 과일값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농촌에서 과일이 안 들어온대요. 겉으로는 상당히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주요 5대 도시를 중심으로는 전통적인 범죄, 폭력이나 납치라든가, 이런 게 줄어서 상당히 평화를 유지하는 것 같은데, 농촌은 완전히 붕괴된 상태더라고요. 물론 우리베가 게릴라

에 대한 강경책을 중심으로 한 국가안보정책에 힘입어서 114년 만에 연임한 대통령, 콜롬비아에 새로운 역사를 쓴 대통령이기도 한데, 2006년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강경책을 썼는데도 결론적으로는 마약 거래량은 줄지 않았고 생산지만 아마존에서 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했어요. 게릴라의 활동지역도 국경지대로 이동하면서 베네수엘라, 파나마, 에콰도르, 브라질과 상당한 군사적인 문제가 벌어졌고요. 그리고 우리베가 부족한 공권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민병대를 동원하게 되는데, 이들이 공권력의 이름으로 게릴라가 지지받는 지역에서 양민들을 학살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버리고 떠나 난민이나 국내 실향민이 됩니다. 난민의 카테고리에 국내 실향민도 들어가는데 국내 실향민은 국경을 넘지는 않지만 자기가 살았던 지역을 떠나서 국내에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말하고, 그다음에 국경을 넘는 사람을 난민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국내 실향민도 난민의 카테고리에 포함시키기도 하지요.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2012년 한 해만 콜롬비아의 국내 실향민이 180%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베가 집권 초기에 강경책을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강경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양산이 되죠. 그래서 우리베가 민병대를 해체하잖아요. 국제적으로 세계 인권단체나 미국조차도 비난을 하면서 결국 2006년에 민병대를 해체하고, 우리베는 다시 재선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기존의 민병대가 해체된 2006년 말부터 2007년 말까지 새로운 조직이 생겼어요. 민병대가 자신들이 활동

하던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신흥조직을 만들었는데, 그때 등장한 8개 단체 중에는 검은 독수리(Águilas Negras)나 대들보 작업장(La Oficina de Envigado) 등이 있습니다.

“플랜 콜롬비아”

플랜 콜롬비아는 무엇인가?

김기현: 우리가 말씀드려야 할 것이 패러밀리터리(Paramilitares)라는 용어인데요, 이 용어가 민병대, 준 군사집단, 우익무장세력 등 여러 가지 개념으로 쓰일 수 있는데요, 오늘 토론에서는 혼용해서 자유롭게

플랜 콜롬비아를 지지하기 위해 콜롬비아를 방문한 당시 콜린 파월 국무장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콜롬비아의 게릴라 문제와 관련해서 "플랜 콜롬비아"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간단히, 송기도 교수님, 아무래도 "플랜 콜롬비아"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송기도: "플랜 콜롬비아"는 콜롬비아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콜롬비아를 위한 플랜이다, 뭐 이런 건데, 사실은 미국을 위한 플랜이죠. 미국에서 코카인이 굉장히 많이 소비됩니다. 미국 입장에서 젊은 사람들이 코카인을 먹고 죽거나 사고를 치고, 정신이 이상해지고, 그래서 사회적인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걸 막고자 했죠. 그런데 미국 내에서 그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취한 정책이 수요보다는 공급을 차단하자는 것이었죠. 미국으로 들어오는 코카인의 80% 이상이 콜롬비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콜롬비아의 코카인 경작을 줄이면 된다는 것이고, 콜롬비아의 코카인을 줄이기 위해서, 마약조직, 게릴라, 패러밀리터리, 이 세 그룹이 다 마약과 연관이 되어있으니, 미국이 콜롬비아에 반 마약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파스트라나 정부 때 시작된 것이긴 하지만 우리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마약 재배를 근절시키기 위해 미국 군인들이 와서 같이 싸우게 된 거죠. 미국이 연평균 6억 달러씩 지원을 했어요. 주로 군사원조로. 우리베 대통령이 재임을 시작할 즈음 미국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자기들이 2000년부터 6년에 걸쳐 3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지원했는데, 코카인이 들어오는 게 하나도 안 줄었다는 거예요. 워싱턴, 뉴욕, 로

스앤젤레스, 시카고의 뒷골목에서 거래되는 코카인 가격이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30억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했으면, 예를 들어 코카인값이 1그램에 100달러 했으면 1,000달러로 솟아야 하거든요. 공급이 확 줄어드니까.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의회에서는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강하게 압력을 행사했어요. 그 당시 우리베 대통령의 대답이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 또 생산해 낸다, 그러니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미국이 고엽제를 비행기로 뿌리라고 제안하죠. 그전까지는 고엽제를 안 뿌렸거든요. 사실 고엽제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걸 뿌리게 되면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코카인이 주로 많이 재배되는 곳이 에콰도르 국경 지역인데 거기에 뿌리게 되면 강이나 바람을 통해 에콰도르까지 가니까 국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콜롬비아가 뿌리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 미국 대사가 〈엘 티엠포 El Tiempo〉라는 신문에 기고한 걸 봤어요. 그걸 뿌려도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식으로 (웃음),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왜 그러면 자기 나라에는 안 뿌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 미국 대사가 그렇게 기고를 했고, 결국엔 콜롬비아가 고엽제를 뿌렸습니다, 비행기로. 그래서 "플랜 콜롬비아"을 지속할 수 있게 됐죠. "플랜 콜롬비아"가 예전에 케네디 대통령이 했던 "진보를 위한 동맹(Alianza para el Progreso)" 같은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콜롬비아의 코카인을 제거

하려는 거였는데, 이것을 우리베는 게릴라를 소탕하는 것으로 엮어서 쓴 거죠. 그 두 가지가 맞물려 있었던 거고요. 조금 더 얘기하자면, 우리베 대통령이 재임을 위해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선서를 했을 때인데요. 원래 2002년에 처음 할 때에는 그 앞 광장에서 했어요, 볼리바르 광장에서요. 그런데 그때 게릴라들이 박격포를 쐈어요. 산 위에서 박격포를 쐈는데 잘못 날아가서 옆에 있던 집에 떨어졌지요. 원래는 취임식장에 떨어뜨리려 했을 텐데, 계산이 잘못 됐겠죠. 그래서 2006년에 취임식을 할 때는 겁을 먹었겠죠, 또 박격포가 날아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했어요. 제가 참석했는데 엄청 비좁더라고요. 어쨌든, "플랜 콜롬비아"를 통해서 우리베는 군사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게릴라를 강공하기 시작했죠. 우리베 정권 이전에는 보고타나 메데인에 가면 예전에는 한 번쯤 게릴라한테 잡혀가고 그랬어요. 외국 사람이 오면 잡아가고, 동네 사람들은 안 잡아가고. 그래서 함부로 못 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베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면, 500미터마다 군인 한 명씩, 2–3킬로미터에는 소대 하나를 배치하는 식으로 그렇게 군대를 깔았어요. 그렇게 해서 통행이 자유롭게 된 거예요. 차를 타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된 거죠. 거기에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었겠죠. 그게 바로 "플랜 콜롬비아"에서 나온 돈이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서서히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죠. 그걸 "민주적 안정 정책(Política de Seguridad Democrática)"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게 민주적이냐 하는 건 논쟁이 많은 거고요.

평화협상으로의 정책적 전환

왜 산토스 정부는 평화협상으로 정책을 선회하였는가?
미국의 영향은 없었는가?

김기현: 마약 퇴치를 위한 플랜이었는데, 그 재원을 게릴라 소탕에도 썼고요. 그렇게 우리베가 대게릴라 강경정책을 통해서 굉장히 인기가 높아졌잖아요, 지지도가 70% 정도까지 올랐고, 재선에서도 승리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산토스 현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런데 왜 산토스 대통령이 그런 정책으로부터 전환해서 협상으로 나아가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학 교수님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재학: 산토스 대통령이 왜 평화협상을 재개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봐요. 우리베 대통령의 강공책은 사실 실패작이에요. "플랜 콜롬비아"도 실패작이고 우리베의 강공책도 실패작이죠. 마찬가지로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가와 콜롬비아의 최근 국민투표 문제는 연결되는 것 같아요. 91년 말 소련이 무너지면서 무장 게릴라의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인 기반이 사라졌고, 콜롬비아는 미국에 대한 마약공급에 게릴라들이 개입을 시작하면서 우익단체와 민병대, 좌익게릴라와 정부가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거든요. 콜롬비아는 90년대 들어오면서 거대한 지하경제가 형성되면서 정치권과 굉장히 크게 연계됐고, 그러면서 우익게릴라와 마피아와 연계되는 현상이 발생했죠. 말씀하신 대

로, 우리베가 "플랜 콜롬비아"를 통해서 게릴라를 소탕했는데, 게릴라를 소탕하면서 2000년대 초반에 민병대, 콜롬비아 자위군연합(Autodefensas Unidas de Colombia: AUC) 같은 단체들을 해체했거든요. 그런데 해체해놓고 보니 자기가 활동한 지역에 다시 들어가요. 다른 곳에서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다시 들어가서 무장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마약에 손을 대면서 새로운 단체가 되고요. 나중에 속속 드러난 건데 우리베 대통령이 안티오키아의 주지사를 하면서 우익민병대 단체와 연루되어 있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우익단체들이 국회의원 선거와도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베가 강경책을 펼칠수록 민병대도 점점 무장화 하고 농민은 강제 이주당하고 또 마약조직과 연계되고, 그러다 보니 복잡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한편, 2000년대 초반이나 중반 같으면 FARC가 협상에 임하지 않았을 텐데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게 새로운 젊은 멤버들 끌어들이지 못했어요. 자연스럽게 노령화되기도 하고 주요 지도자들이 고령이나 폭격으로 사망하는 등의 상황에서 신규 수혈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콜롬비아가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하게 GDP가 3배에서 4배가 성장했습니다. 이것이 FARC가 공략할 수 있는 취약한 젊은 층의 감소로 이어져서 게릴라의 신규 수혈이 안 되고 있었고요. 아마 2002년에 2만 명이던 조직원이 평화협상에 임할 때쯤에는 7천 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물론 7천 명은 '풀타임' 조직원이고요, 도시마다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게 한 2만 명이 넘고, 우익 민병대와 연관되

어 있어서 실제로는 더 크지만, 어쨌든 인원이 줄었어요. 한편, 콜롬비아 국민들은 산토스 대통령이 나오면 국기를 들고 "Paz, Paz, Paz(평화)"라고 외치는데, 뒤에서는 다 한 소리씩 해요. 콜롬비아의 상류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콜롬비아 국영석유회사(Ecopetrol) 사람들도 "Paz, Paz" 하면서도 비판을 해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산토스 대통령이 제시하는 게릴라와의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콜롬비아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들 회의적이거든요. 저도 회의적인데, 사실은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해서 게릴라의 준동이 잡힐 거라고 생각지 않고요. 두 번째,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지 않아요, 단 한 가지, 치안 문제, 사회안전망의 문제는 상당히 회복이 될 겁니다. 지금도 많이 회복됐고요. 콜롬비아 가니까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밤에 보고타 시내 밤거리에 젊은이들이 돌아다니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 않고, 게릴라 준동도 멈추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세계〉라는 영화 보셨죠? 최민식이 나오고, 경찰이 의도적으로 강한 놈 하나를 키워요. 여러 범죄 집단이 있으면 그게 오히려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요. 하나의 범죄 집단에 힘을 몰아주면 경찰은 그거 하나만 컨트롤하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익민병대가 강력한 단체가 있을 때는 컨트롤이 쉬웠는데 정부가 오히려 이것을 해체시키면서 파편화되면서 우리베 시기에 역효과가 났었거든요. 마찬가지로 FARC라는 하나의 강력한 집단이 해체되면, 말은 평화협상으로 게릴라가 해체되고 그들에

게 의석 몇 석 준다고 하지만, 그 많은 수가 다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요. 무장투쟁을 20년 넘게 한 사람들인데, 지금 '정상화를 위한 과도기 마을(Transitional Village Zones for Normalization: TVZN)'이라는 것을 만들어 무장해제 후 몇 개월 동안 재사회화를 도와준다는 게요. 내 가족이 그들한테 당했는데 그들이 캠프에서 나오는 순간, 내가 총 들고 그들한테 반드시 복수하려 하겠죠. M-19의 나바로 울프(Navarro Wolff)가 나리뇨 주지사가 되면서 지도자가 제도권으로 들어왔듯이, FARC의 지도층도 제도권으로 들어올 거예요. 평화협정이 타결되고 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게릴라가 의회에서 몇 석을 얻어 제도권으로 들어올 거지만,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다 제도권으로 수용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무장하지 않으면 복수의 연속이 돼요. 결국은 철수했던 지역에, 우익민병대처럼 다시 들어갈 거고요,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댈 거고, 불법 광산에 손을 댈 거고. 이게 하나일 때는 협상이 되지만 오히려 조직이 10개, 100개로 나뉘면 더 복잡한 양상이 벌어지고, 납치도 산업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평화협상이 내놓은 게 콜롬비아 농촌이 5천만 헥타르의 개발인데요. 그런데 현재 7백만 헥타르밖에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콜롬비아 국토의 1/3이 아직까지 통제가 안 되고 있고 거기에 농촌과 광산이 몰려 있는데, 콜롬비아 산토스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게릴라 소탕과 농촌지역 5천만 헥타르를 개발해서 피폐화된 콜롬비아의 농촌을 재건하면 콜롬비아가 발전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7백만밖에 개발

이 안 돼 있는데, 어느 세월에 5천만까지 개발을 하나요?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왜 아느냐면, 아메리카 대륙에서 농업 경쟁력이 있는 건 미국하고 칠레밖에 없어요. 콜롬비아는 농촌경제가 피폐해지면서 농민들한테 보조금을 줘요. 그런데 2013년에 그 보조금을 삭감했어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조금을 삭감해서 그 돈을 산업에 투자하려고요. 그러니 농민들이 파업을 했어요. 그 당시 파업에 총을 쏴서 농민들이 50명 정도 죽었는데, 2013년 9월 6일 마침 그때 국가포럼에 초청받아서 갔을 때 제 발표 주제가 이것과 연결된 것이었어요. 결국, 그 이유가 뭐냐면 콜롬비아의 GDP가 3배에서 4배 성장하면서 2000년대에 물가도 올랐어요. 그리고 주택가격과 토지가격이 폭등했어요. 콜롬비아 보고타의 힐튼 호텔이나 JW메리어트 호텔 가격이 한국보다 비싸면 비쌌지 싸진 않아요. 건설 붐이 일어났고요. 그런데 콜롬비아에 거품경제가 있어도 거품이 안 깨진 게, 지하경제가 70%이기 때문이지요. 이번 협상에 대해서 농촌을 7백만 헥타르에서 5천만 헥타르까지 개발할 수 있다고요? 개발 못 해요. 개발한다고 해도 그 농업생산품이 라틴아메리카에서 경쟁력이 없고요. 산토스의 평화협상은 사회경제적인 이유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이슈고, 사실 콜롬비아의 지도층도 상당수는 알고 있고, 그것이 실은 허황된 환상이라는 것,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기현: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걸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려고 했는데, 한 번에 죽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여하튼 중간에 다시 보충해주시

고, 일단 간결하게 말씀해주셨지만, 산토스 정부가 들어와서 평화협상으로 급격히 전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차경미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차경미: 저는 산토스 정부의 평화협상 재개 이유가 "플랜 콜롬비아" 실패에 있다고 보거든요. 산토스는 우리베 정부에서 국방부장관을 역임했었고 게릴라 소탕작전을 선두에서 지휘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베 집권 2기까지 국방부장관을 역임하면서 대게릴라 강경책을 지휘해보니까, 마약 거래량에 변화도 없고 폭력은 더 증가했고, 가장 큰 문제는 콜롬비아 내전이 확대되면서 외교 문제로, 특히 우리베와 차베스의 외교 문제, 콜롬비아군이 게릴라를 소탕하겠다

FARC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거리 시위

는 이유로 베네수엘라 국경을 넘어간 FARC을 잡겠다고 국경을 넘었거든요. 그래서 차베스가 전면전을 선포하고 굉장히 긴장이 고조된 일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콜롬비아에서 유행했던 말이 "차베스는 미쳤지만 영리하고, 우리베는 영리하지만 미쳤다"라는 말이 일반화될 정도로 "플랜 콜롬비아" 실패와 우리베 정권이 유지해왔던 강경정책의 한계가 드러났어요. 더군다나 난민 문제나 양민학살 문제에 따른 국제 비난 여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베 정부가 집권 말기에 가면서 지지율도 떨어지게 되고요. 집권 2기 처음 들어섰을 때는 114년 만에 콜롬비아의 역사를 새로 쓴 대통령이었는데, 2008년부터 인권문제라든가 난민 문제로 국내외적 비난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베가 정권말기 FARC와의 대화 창구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산토스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우선적으로 했던 게 반 우리베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거였는데요. 자기가 "플랜 콜롬비아"를 추진했었고 우리베 정권의 선두에서 지휘했던 사람이었으니, 국제적으로 반 우리베 이미지를 심고 싶었을 테고요. 그래서 우리베의 "플랜 콜롬비아" 실패에 대응해서 게릴라와의 협상을 주도적으로, 일단 2년간의 비밀협상을 통해서 구체화하지 않았나 싶고요. 저는 그게 산토스가 협상을 재개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송기도: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차 교수님이 얘기한 데로, 후안 마누엘 산토스는 우리베 밑에서 우리베의 오른팔로 대게릴라 강경정책을 수행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베가 산토스를 뽑았어요. 물론 산토스가 콜롬비아에서 굉장히 유력한 집안 출신입니다. 〈엘 티엠포 El

Tiempo〉라는 신문이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합쳐놓은 정도인데 굉장히 영향력이 커요. 그 집안 거예요. 그런데 산토스가 우리베 정권에서 국방부장관을 했지만 자기 사촌 프란시스코 산토스(Francisco Santos)도 부통령을 했어요, 우리베 밑에서. 그래서 차기를 두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누가 할 것인가, 부통령도 있지, 국방부장관도 있지. 그런데 후안 마누엘 산토스는 강력한 매파죠, 게릴라를 공격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프란시스코 산토스는 NGO 출신이에요. 상당히 평화주의자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베가 정책 입안에 산토스 가문의 두 사람을 쓰면서, 온건판 프란시스코를 부통령으로 쓰고 후안 마누엘을 통해서 강경책을 펴왔던 셈이죠. 그런데 산토스가 왜 갑자기 변심했을까. 영국의 기자들이 "매"에서 "비둘기"로 라고 했듯이, 매파에서 비둘기파로 바뀌게 됐을까. 차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플랜 콜롬비아"의 실패다. 물론 그것이 중요한 요인이 되겠지만 추가적인 요인이 있는 듯해요. "플랜 콜롬비아"를 일선에서 수행했던 사람이 산토스이고 그래서 우리베의 낙점을 받아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베가 3선을 하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3선은 안 된다고 결정을 내려 어쩔 수 없이 산토스에게 넘겼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베는 산토스가 자신의 정책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어가는 척하다가, 제가 볼 때는 산토스가 개인적으로 유혹을 느꼈을 것 같아요. 뭔가 업적을 남겨야 하는데 계속 밀어붙여서는 안 되겠다. 우리베의 "민주적 안정 정책"을 통해서 게릴라들의 힘이 약

화된 건 사실이에요. 아까 3만 5천이라고 했는데, 그게 1만 5천까지 빠졌거든요. 충원도 줄고 에콰도르 국경까지 특공대가 가서 공격했거든요, 난리가 났었죠. 그렇게 해서 지도자들도 공격받고 지도부가 붕괴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힘이 굉장히 약화됐다. 그런 상황에서 산토스가 대통령이 되고, 조금 뒤에는 그런 유혹을 느꼈을 것 같아요, 평화협상으로 내가 업적을 세워야겠다. 그리고 평화협상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앞서 3번이나 있었잖아요. 물론 실패한 것도 있었지만, M-19는 평화협상하고 들어와서 선거에 참여했었거든요. 대통령 후보 나와서 3위 했지만 15% 지지를 받았고 헌법 개정을 위한 임시 국회의원 선거해서 1당이 됐었어요, 27% 득표했단 말이죠.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해보자고 한 것 같은데, 그게 우리베의 마음엔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우리베는 뒤통수 맞은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베가 반발을 굉장히 심하게 했죠. 그래서 산토스를 공격했고, 그래서 산토스가 재선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우리베가 별도로 당을 만들어서 민주중앙당(Partido Centro Democrático: PCD)이라고 해서 말은 민주중도연합인데, 완전 극우정당에, 우리베가 오스카르 이반 술루아가(Óscar Iván Zuluaga)를 자기 대리로 내보낸 거예요. 어쨌든 산토스가 되긴 됐죠.

김기현: 그다음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기로 하고, 이재학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콜롬비아가 치안에 대한, 사회 안정에 대한 요구가 강했고, 우리베든 산토스든 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베는 그걸 힘으로 실현하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고, 산토스는 평화협상 밖에 길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 외에 우리베나 산토스가 자유당 출신이긴 하지만 두 세력의 지지기반이 서로 다른데, 우리베는 농촌 지주세력이 지지기반이고 산토스는 〈엘 티엠포 El Tiempo〉와 대기업, 산업 쪽이 지지기반이지요. 그래서 평화협상으로 가면 아무래도 농지개혁의 문제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베 쪽은 반대할 수밖에 없고, 산토스 쪽은 그런 부담은 없으니까. 그러면서 세력이 분리되고 산토스 쪽이 정권을 잡으면서 평화협상으로 갈 수 있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송기도: 지지기반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베 지지기반은 안티오키아에요. 그런데 안티오키아주가 콜롬비아 경제의 핵심입니다. 안티오키아 출신들이 경제를 장악하고 있고요, 우리베가 안티오키아 주지사를 했고요. 실은 그 경제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AUC라고 하는 패러밀리터리를 조직하는 걸 허락했고 거기에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서 그걸 해체했는데, 제대로 못 한 거죠.

이재학: 산토스의 정책에 대해 안티오키아 경제인들의 불만이 있더라구요. 제가 2013년, 2014년도 가을에 메데인에서 섬유산업 관련해서 구조조정 문제로 저를 초청해서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메데인이 섬유산업의 중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산토스가 되면서 칼리(Cali) 지역으로 지원이 집중됐고 안티오키아는 찬밥신세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컸고요. 칼리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더라고요. 도시,

농촌의 문제도 있지만 지역 간의 갈등이 있더라고요.

송기도: 그게 맞을 겁니다. 저는 최근에 산토스가 어떤 정책을 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안티오키아가 우리베의 지지기반이에요. 새누리당의 지지기반이 TK이듯이.

이재학: 우리베의 지지기반이 안티오키아니까 산토스는 그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차별을 했어요. 사실은 칼리 지역에 집중하면서, 주한 콜롬비아 대사 중에 카발(Jaime Alberto Cabal)이라고 있었어요, 한국에 오는 콜롬비아 대사들은 크게 신의 없는 군장성 출신이 했었는데, 카발 대사가 우리베와 산토스의 친구고요, 우리베 시절에 장관도 했었고요, 그래서 한국 외교부에서도 한국에 온 콜롬비아 대사 중에 가장 힘 있는 대사가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를 파견한 이유는 한-콜롬비아 FTA 협상 때문이었고, 그게 끝나고 나서는 오스트레일리아로 갔는데, 그도 칼리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주지사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상원의원 나갔었는데 떨어졌고. 그런데 그 사람도 야망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를 산토스 대통령에게 소개시켜줬고,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 산토스 주변의 장관이나 주요 그룹이 다 칼리 쪽이에요.

송기도: 독립 당시에도 안티오키아는 콜롬비아로부터 독립하려고 했어요. 그만큼 경제적으로 강한 지역이었고요. 자부심도 강하고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거의 백인 중심이에요. 메데인에 가시면 흑인이 없어요. 거의 완벽한 백인 도시에요. 상공업 등 콜롬비아 경제의 중심이고요. 칼리는 굉장히 다르죠. 거기는 흑인이 많고요.

도시 규모는 200만으로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안티오키아의 위상은 말씀하신 대로 산토스의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곳이죠.

김기현: 예전에 우리베 때는 미국의 부시 정부를 통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산토스에 대해 오바마 정부가 평화협상을 밀어주는, 그런 건 없습니까?

차경미: 우리베의 게릴라에 대한 강경책이 미국이 9·11 이후에 반테러를 국가안보 정책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채택하면서 "플랜 콜롬비아"를 통해서 좌익 반군집단을 테러집단으로 규정하고 반군퇴치를 종용하거든요. 그러면서 반테러 전략에 동참하지 않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를 배제하거나 그러는데, 거기에 콜롬비아가 자신의 국내문제와 연결시켜서 부시의 반테러 전략에 동참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베 대통령의 국가안보정책의 주요 배경을 보면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이 많이 작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바마가 산토스를 방문해서 "플랜 콜롬비아"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하면서 평화협상 체결이 조속한 마무리 내지는 잘 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베가 강경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건 부시의 반테러정책과 맞물려 있었던 거죠.

김기현: 미국의 영향도 없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재학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영향, 특히 평화협상에 있어서요.

이재학: 평화협상에 미국의 영향력이 있다고 해도, 예전처럼 마약과 연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미국은 멕시코가 더 주요 현안이기 때문에, 예전처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기현: 송기도 선생님은요?

송기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플랜 콜롬비아"는 콜롬비아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우리베가 그렇게 쓴 거고요. 미국도 그걸 승낙한 거고요. 2009년 1월 13일에 부시가 백악관에서 우리베에게 자유 메달을 줬어요, 수고했다고.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반미에 한목소리를 내잖아요. 그런데 콜롬비아는 독특하게 우파 목소리를 내면서 계속 싸워왔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미국과 군사협정을 맺어요. 7개 군사기지를 미국이 사용할 수 있게 말이죠.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굉장히 화를 냈죠. 차베스가 이건 전쟁이라고 생각했죠. 미국하고 콜롬비아하고 사인한 건데, 2010년에 콜롬비아 헌법재판소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죠.

이재학: 미국 공군기가 콜롬비아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작전을 펼 수 있었거든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긴급명령: Clear and present danger〉(1994)라고 해리슨 포드가 나오는. 사실 미국은 군사작전을 콜롬비아 내에서 1990년대, 2000년대에 자유롭게 펼칠 수 있었고, 남미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콜롬비아가 어떻게 보면 교두보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미국이 보는 콜롬비아의 전략적 가치가 2000년대에 비해서 지금은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보거든요. 과연 지금 콜롬비아의 전략적 가치가 그만큼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미국이 콜롬비아의 전략적 가치를 낮춘다는 느낌이에요.

송기도: 미국의 영향이 콜롬비아에서 어느 정도이냐. 라틴아메리카 전체를 놓고 보면, 제가 콜롬비아 대사로 신임장을 받고 각국 대사들을 방문했어요. 미국 대사, 러시아 대사, 일본 대사, 이렇게 친하게 지내자고 방문을 했어요. 그렇게 미국 대사를 만났는데, 만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만나는 게 콜롬비아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그런데 정말 어려워요. 대사관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문에서 몇 번이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미국 대사 만나러 왔다고, 내가 대한민국 대사라고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좀 언짢았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미국 대사에게 물었더니,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2006년에 전 세계에서 미국 대사관 중 가장 큰 대사관이 이라크 대사관이랍니다. 인원이 가장 많이 나가 있고. 두 번째가 콜롬비아 대사관이래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원이 가장 많이 나가 있는 데가 콜롬비아다. 그리고 콜롬비아 미국 대사관은 보고타 시내 한복판에 한 블록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철벽 요새에요. 2중, 3중으로 차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미국 대사관은 굉장히 위험하죠. 아까 인질 얘기를 했었는 데, 차경미 교수님은 잡혀갔어도 몸값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웃음)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 게릴라들이 인질을 잡을 때, FARC이나 ELN 같은 게릴라들은 그냥 민간인은 안 잡아요. 자기들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잡는 것이고 반정부전략을 위해 정보를 얻으려는 것이지요. 미국 대사를 잡아가려고 하겠죠. 그리고 장·차관도

공격하겠죠. 그리고 정부와 유착되어 있는 기업들, 그렇게 공격하겠죠. 그리고 게릴라들도 아무 옷이나 입지 않아요. 콜롬비아 정부군하고 똑같이 생긴 옷을 입고 콜롬비아 군인이라고 쓰고 그래요. 그러면 콜롬비아 정규군과 어떤 차이가 있냐. 정규군은 워커를 신고 게릴라들은 장화를 신고 다녀요. 그걸로 구분해요.

차경미: 몸값은 안 되지만 한국인이라는 국적이 그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 같은 여행객을, 더군다나 나는 학생인데 왜 납치를 했느냐고 물었더니, 정부와의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더군요. 정부와의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인이라는 저의 신분이 상당히 매력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몸값을 요구하는 게릴라인 경우에는 잡범인 거죠. 정부 요인을 납치하는 것 말고, FARC보다는 ELN가 사실 외국인 근로자들을 납치해서 몸값을 요구하고, 제가 외국인으로서 잡혔다는 것으로 아까 그 몸값 얘기는... (웃음).

송기도: 한 가지 예를 들면, 1990년대 말에 보고타에 일본 대기업의 지점장으로 와 있던 사람이 잡혔어요. 그래서 일본과 인질 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콜롬비아 정보국에서 정보를 입수해서 급습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납치범들이 그 일본 사람을 죽였지요. 그래서 사태가 커졌죠. 그 후에 일본 기업들이 전부 철수했습니다. 그때 우리 기업은 들어갔고요. 그래서 우리가 돈 좀 벌었죠. 콜롬비아에서는 일본 기업보다 우리 기업들, 삼성, LG가 탄탄하게 일할 수 있었던 요인 중의 하나는 일본 사람들이 대리인을 시켜서

하기는 했지만 콜롬비아에 못 가는 거예요. 가면 납치의 대상이 되니까.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대사를 할 때 경호원을 쓰지 않았어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영국 대사를 만나서 오페라를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앞뒤로 둘러서 경호원들이 있어요. 일본 대사도 마찬가지죠. 앞에 차, 뒤에 차. 그래서 저도 뭐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봤죠. 그런데 나를 납치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왕 할 거면 일본이나 협상을 하더라도 돈이 되는 대상을 하지, 괜히 한국을 했다가 국제 사회에서 욕먹고 몸값도 많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내가 조심해야 할 것은 잡범인데, 잡범이 대사를 건들었다가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잡범들은 사업하는 사람이 낫지, 외교관을 건들었다가는 나라가 뒤집어지죠. 그렇게 생각해보니, 아, 나는 납치는 안 당하겠구나, 그렇더라고요. (웃음)

콜롬비아 정부와 FARC 간의 평화협정

평화협정의 주요 내용과 쟁점은 무엇인가?

김기현: 예, 이야기가 재밌긴 하지만, 진도를 나가야 하니까. 일단 평화협상이 기대와 다르게 안 됐어요. 그 내용을 짚기 전에 평화협상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차경미 교수님 짚어주시죠. 평화협상의 주요 내용과 쟁점들.

차경미: 과정에 대한 내용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아실 것 같고, 주요 쟁점

2016년 9월 26일 쿠바 아바나에서 평화협정안에 서명한 후 악수를 나누는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과 로드리고 론도뇨 FARC 지도자

을 보면 다섯 가지가 주로 논의가 됐는데요. 토지개혁 및 농촌개발, FARC의 정치 참여 보장, 무력 분쟁 종식, 마약 근절 및 밀매 퇴치, 내전 희생자 권리 보장, 이렇게 다섯 개 항목을 두고 협상이 진행됐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과연 누가 내전의 피해자 인가, 이것이 평화협상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였고요. 그리고 농촌개발과 토지개혁, 이 두 가지가 이번 평화협상에서 어려웠던 문제였고, 정치참여 보장은 산토스가 전 정권의 평화협상과는 달리 FARC의 요구안을 수용했죠. 그런데 결국 협상안이 국민투표 부결이라는 결과를 낳았는데요. 국민투표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토지개혁과 농촌개발 문제, 피해 보상 문제였는데, FARC의

입장에서는, 우리도 피해자다,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받아 왔고 우리베 때 반 정도가 사망을 했고, 지도자들도 많이 사망했고, 그래서 내전 피해자의 카테고리에서 단순하게 양민이나 실향민이나 내전 희생자만 다룰 것이냐. 이것 때문에 서로 입장이 맞지 않았는데, 내전 희생자 문제도 어느 정도 정부가 가해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면제시킴으로 인해서 반대자들의 반발을 사게 된 것이고요. 토지개혁과 농촌개발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송기도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베 정권의 정치적 기반이 콜롬비아 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안티오키아 지역인데, 대부분이 커피를 중심으로 해서 전통적으로 대지주 세력이 강했지요. 우리베 정치를 민병대 정치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대지주들은 자신들의 토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민병대를 만들었고, 메데인 카르텔이 활동하는 지역에서는 마약업자들이 자기 보호를 위해서 민병대를 만들었고, 그리고 농민들 역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위군을 만든 것인데요. 농촌개혁의 가장 주요한 문제는 토지 불균등을 해소하는 거죠. FARC가 주장한 것은 불모지나 원주민 토지라든가 국가에서 소외된 지역의 토지를 자기들에게 양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개혁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의 행정력과 별도로 자치구역처럼 자신들이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베가 주장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이번 평화협상에서 지주들의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베가 안티오키아라고 하는 전통적으로 지주를

기반으로 한 지역에서 반평화협정 캠페인을 벌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평화협정의 5대 쟁점 중에서 피해자 보상, 누가, 어디까지 피해보상을 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가해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쟁점이 부각됐고요. 그다음에 토지개혁을 통해서 농촌개발을 하고 이를 통해 사회에 복귀한 FARC 대원들에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겠다는 게 주요 쟁점 중 하나였는데, 이 두 가지 때문에 많은 재협상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김기현: 네, 그럼 송기도 교수님.

송기도: 네, 그 부분은 계속 얘기가 될 건데. 부결됐잖아요. 그게 참 아까운 건데. 0.5%던가요? 5만 표였던가요? 다 될 줄 알았는데, 부결됐단 말이죠. 어찌 보면 아직도 콜롬비아에는 우리베식의, 그러니까 우리베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부모님도 게릴라한테 죽었다. 그 원한이 있어요. 어찌 보면 사적인 원한이겠죠. 국가 지도자로서의 원한보다도. 그런 원한이 있어서 게릴라에 대해서 강경하게 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산토스의 평화협상에 대해서 아니라고 한 거죠. 게릴라들이 정치에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의회의 10석을 차지한다고 하면, 피해자-가해자 구분도 안 되는 것이고, 그들에 의해 죽었는데 어쩌란 것이냐, 이런 식의 논쟁을 불러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게 됐고, 결국엔 수백만이 콜롬비아를 떠나고 수십만이 죽은 이 전쟁을 못 끝내고, 부결됐잖아요. 저는 이 문제가 계속 간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하루 이틀에 생긴 문제가 아니고, 또 어찌 보면 FARC한테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진 자들,

즉 지배계층이고, 그리고 패러밀리터리, AUC, 이런 자경단이나 군인들한테 당했던 사람들은 힘없는 서민들이에요. 떼로 몰살당한 일도 무진장 많았죠. 그런데 지금 우리베가 어쨌든 힘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부결시켰어요. 그래서 재협상을 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국민투표가 아니라 국회를 통해서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통과될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어제 뉴스인가요, 게릴라하고 싸워서 2명이 죽었어요. 전쟁이 다시 터졌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갈 수 있을 것인가. 게릴라도 반발할 수 있다고 봐요. 이번 재협상에서 게릴라들이 양보를 좀 했거든요. 조금 더 양보는 했는데, 쉬운 일은 아니겠다.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어찌 보면 천일 전쟁, 1948년 가이탄으로 시작된 한 15년 동안의 전쟁과 같은 상처가 아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는데 어긋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평화협정에 대한 국민투표 부결

왜 콜롬비아 국민들은 평화협정을 거부했나?

김기현: 왜 콜롬비아 국민은 평화를 거부했나, 이게 마지막 주제이기도 하고,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온 것 같은데, 최근의 세계 여러 선거를 보면 여론조사와 선거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콜롬비아 평화협상 국민투표가 그랬고,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당선이 그랬고, 영국의 브렉시트도 그렇고요. 나아가야 할 방향은 평화고 자

유무역이고 인종차별 없는 세상인데 사람들 가슴 속에는 증오, 인종차별, 국가주의, 이런 게 팽배한 것 같아요. 이걸 드러내놓고 말은 못 하다가 표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콜롬비아 사람들 마음에도 증오가 있는 것 같아요. FARC에 대한 증오, 평화협상에 대한 회의. 콜롬비아 사람들 마음이 한편으로는 평화를 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증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상황이 어떻습니까? 콜롬비아 사람들이 도대체 뭘 원하는 거예요?

이재학: 제가 최근에 많이 만나봤거든요. 물론 제가 만난 사람들은 기업인들,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인데, 제가 느낀 건, 김대중 정부 때의 햇볕정책이나 산토스 대통령의 평화협정이 어떤 점에서 보면 비슷해요. 사실 산토스 대통령은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를 평화협정으로 했지만, 제가 느끼기에 많은 기업인이나 백인들이 겉으로는 대통령을 지지하고 같은 당이고 하지만 내적으로는 평화협정을 지지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어요. 메스티소나 저소득층이나 못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열렬히 지지하는 성향이 있었고요. 국민적 여론이 반반으로 갈린 것 같아요. 이건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있지 않나 싶고요. 사실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콜롬비아 사람들도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정말로 평화협정이 돼서 평화가 정착하고 게릴라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4~50년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지 평화협정 하나로 게릴라가 사라지고 평화가 정착하고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민중적인, 대중적인 프로파간다는 될 수 있어도.

김기현: 차경미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차경미: 평화협정에 대해서, 그들이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것이 "네(Sí)+아니오(No)=평화로의 길(Camino a la paz)"에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수용하지만, 일정 부분은 수용하지 않겠다. 이건 양측이 똑같아요. 게릴라 측의 카를로스 안토니오 로사다(Carlos Antonio Lozada)라고, 게릴라 측의 외무부 장관 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평화에 나선 것이 이미 서명된 평화협정이 수정될 수 있다는 입장은 아니라고 하면서 강경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릴라 측도 네(Sí)+아니오(No)이고, 일반 콜롬비아 국민들도 Sí+No인데, 게릴라 측과 국민들 사이에서 Sí와 No가 서로 다른 거죠. 콜롬비아의 게릴라 문제는 단순하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토지분쟁으로부터 시작됐거든요. 19세기 내전도 마찬가지고요. 가이탄을 중심으로 한 폭력이 발생한 것도, 가이탄이라는 민중 지도자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토지문제 때문이에요. 가이탄은 변호사로서 우라바(Urabá) 지역의 대농장에서 농민들의 학살을 경험하면서 민중 지도자로 변신하게 되죠. 40년대 중반에 알폰소 로페스 푸마레호(Alfonso López Pumarejo)대통령이 "혁명을 위한 행진(Revolución en marcha)"이라는 슬로건 아래 하고자 했던 혁명이나 개혁의 주요 대상도 토지개혁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는 콜롬비아의 평화협정에서 가장 합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토지를 둘러싼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베가 평화협정에 대한 반대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피해자 보상 문제이지만 실질

적으로는 지주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게릴라 측에서도 다른 건 양보하더라도 양보 못 하는 건 농촌개발과 토지개혁에서 불모지로 있거나 주인이 없는 국유지의 일부를 자기들한테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평화협상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콜롬비아의 평화정착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미 뉴스를 통해서 들었듯이 협상 중에 2명이 사망했고, 2000년에 민병대를 해체했지만 이들이 또다시 자기들이 활동한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고, 거점지역을 이동하거나 이름을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경제적 이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민병대가 해체되었다가 재무장 한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불법 작물 재배 지역의 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마약을 통해 경제적인 이권에 개입하고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정부에 의해서 해체되었지만 다시 모였거든요. 저는 콜롬비아의 평화협상이 어떤 식으로든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토지를 둘러싼 분쟁이나 경제적 이권을 둘러싼 분쟁은 지속될 것으로 봐요. 새로운 조직이 등장하거나 기존 폭력조직이 이름을 바꾸고, 콜롬비아 게릴라들이 국경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베네수엘라, 에콰도르의 새로운 신흥조직과 연대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국제네트워크를 통해서 조금 더 조직화된 범죄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가 지닌 가장 큰 문제, 즉 토지를 둘러싼 분쟁, 생산수단에 대한 독점 구조, 이런 것이 변화되

지 않는다면, 콜롬비아의 평화협정은 또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송기도 교수님도 말씀해주시지요.

송기도: 예, 참 놀랍게도 국민이 딱 반으로 나뉘었어요. 우리베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취했던 정책이 게릴라와는 대화가 없다는 것이고 강경 정책, 토벌정책이었죠. 어찌 보면 국민을 상대로 싸움을 한 거죠. 산토스가 대통령이 되고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이건 아니라고 보고 평화로 가야겠다고 선택했던 거고요. 국민분열이 아니라 국민화합으로 가야겠다는. 그래서 평화안을 어렵게 만들어냈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요청을 했는데, 국민의 절반이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앞에서 여론조사가 엉망이다. 도대체 안 맞는다. 대체 왜 그러냐. 브렉시트도 그렇고, 미국의 트럼프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그게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심스럽게.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내셔널리즘이, 내셔널리즘이 조금 더 나가면 파시즘이거든요, 이런 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콜롬비아에서도 우리베를 지지하는 세력들, 극우세력들이 있죠. 그게 의외로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김기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평화 정착을 원하지만, 상대 세력을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고 얻는 평화, 이런 걸 원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들이 어떤 갈등과 긴장 속에서 뭔가 정치적 이익을 얻는 구조가 여전히 남아 있고요. 콜롬비아에 이런 세력이 있는 이상, 평화협상이 결코 쉽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새로운 평화협정안이

11월 12일에 만들어졌고, 이건 국민투표에 부치지 않고 의회 승인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그런 세력이 있는 국민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 한, 평화로의 길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송기도: 한 가지 희망은요, 1990년에 헌법 만들 때, M-19가 제도권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때 국회에서 의석의 27%를 차지했어요. 70석에 20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석이 우파였어요. M-19가 제1당이 됐어요. 그다음에 보수당이 26%였고요. 제가 콜롬비아에 있을 때 한 교민분이 저한테 M-19가 게릴라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M-19인데 정부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했었고, 지금도 M-19가 정부에 계속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평화협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많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학: 그런데 저는 M-19와 다른 게릴라 조직이 차이가 있다고 봐요. 서로 조직기반이 달라요. M-19는 도시기반이었고요. 그래서 그만큼 용해될 수 있었고요. 또 제도권에 들어올 당시만 하더라도 게릴라 조직이 콜롬비아 지하경제에 그렇게까지 영향이 크지 않을 때였거든요.

차경미: M-19는 1970년대에 도시를 기반으로 했어요. 반면 다른 게릴라 같은 경우엔 기반이 농촌이에요. 농민 자위군을 중심으로 하고요. FARC도 농민자위군을 중심으로 형성됐고, ELN도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농촌에 기반을 둔 게릴라의 특성을 갖고 있고요. 콜롬비아의 5대 게릴라 조직이 다 농촌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유일하

게 M-19 같은 경우에는 지식인과 학생을 중심으로 한 도시 기반 게릴라였어요. 비교적 제도권으로 쉽게 진입할 수 있었던 이유가 M-19의 사령관이던 나바로 울프(Antonio Navarro Wolff)가 학력이 옥스퍼드대학, 즉 콜롬비아 사회 내에서 지도자로 받아들일 만한 외적 조건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지사를 할 수 있었고요. 저는 FARC이나 ELN 같은 조직과는 달리 M-19의 제도권 진입은 다른 차원에서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콜롬비아의 평화와 한국

콜롬비아 평화 정착이 한국 기업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김기현: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죠. 쉽지는 않겠지만, 만약 평화협상이 잘 돼서 콜롬비아에 평화가 정착된다면, 우리 한국 기업들의 콜롬비아 진출에 뭔가 달라지는 게 있을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이재학: 일단 한국기업의 진출과 한국 제품의 수출은 별개로 이해해야 하고요. 한국 제품의 수출은 거의 10대 업종에 해당되어 있지만, 한국 기업이 진출한다면 두 가지예요. 수출을 도와주기 위해서 판매부문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현지 제품 생산을 위해 생산부문이 들어가든지. 라틴아메리카 전체를 봤을 때 한국기업이,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다국적기업을 포함해서, 생산부문이 들어갈 곳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브라질, 멕시코. 브라질과 멕시코 이외에 생산

부문이 들어간 곳은 중미에 있죠. 니카라과 같은 곳에 섬유업체들. 그 외에 생산 법인이 들어간다, 특히 콜롬비아에 한국기업이 생산 부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고요.

김기현: 자원개발이나 인프라 쪽으로는 어떤가요?

이재학: 자원개발은... 과연 라틴아메리카에서 한국이 자원개발을 할 수 있을까요? 못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페루나 칠레의 구리광산을 산다고 하지만, 중국이니까 가능하고요. 어마어마하게 투자하지만, 중국도 사실 투자할 수 있는 게 10% 미만이에요. 그리고 따져보면 엄청난 적자고요. 라틴아메리카에서 한국이 자원외교를 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자원외교를 제외하고, 라틴아메리카에 한국기업이 진출한다면 브라질, 멕시코로 진출할 수밖에 없고요. 물론 멕시코와 브라질로 진출하는 이유는 다르겠지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산법인과 연관해서요, 콜롬비아에 생산법인이 들어가려면 전제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인프라가 있어야 해요. 콜롬비아엔 도로가 없어요. 보고타에서 부에나벤투라(Buenaventura)까지의 운송비용이, 부에나벤투라에서 인천까지의 운송비용보다 더 비싸요. 고속도로가 깔려야 해요. 물론 게릴라 문제가 해결되면 건설회사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공공-민간 동맹(Alianza Pública Privada) 법안이 통과된 이유가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건설해주고 운용비용을 뽑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기업들은 설계, 조달, 시공(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EPC)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금조달도 힘들고 개발할 능력도 부족한 상황이

라고 봐요.

김기현: 평화협정과 우리 기업진출과는 크게 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얘긴데, 다른 교수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차경미: 저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봐요. 콜롬비아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한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고, 앞으로 치안 유지를 위해서 CCTV 분야라든가 IT산업에서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내전 기간에 도시의 인프라가 상당히 파괴됐기 때문에 정부가 평화협상 이후에 도시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증세계획도 발표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산토스에겐 정치적 인기를 하락시키는 부담이 되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도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기업이 가진 건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가 콜롬비아를 자주 가는데, 가보면 버스 교통카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쥘 수 있지 않을까. 크진 않겠지만 한국기업에 투자에 유리한 조건이 제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학: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한국기업이 FTA 체결되고 굉장히 많이 진출하게 될 거예요. 평화협상과는 상관없이요. 다만 생산법인이 못 나가지, 수출은 증대될 거고요. IT산업이나, 특히 스마트교육에 콜롬비아가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화협상과는 관계없이 진출은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김기현: 네, 이번엔 송기도 교수님 말씀해주시지요.

송기도: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정확히 말은 못 하겠지만, 일단 평화협정이 이뤄져서 전쟁이 끝난다고 하면, 그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는 크겠죠. 연평균 1.5%가 발전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더 많이 진출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정치·외교적인 부분에서 콜롬비아를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물론 제가 거기 있을 때도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사실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 즉 한국전쟁 기간에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군대를 파견했던 국가가 콜롬비아입니다. 5천명의 병력과 함정 1척을 보내줬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립하고 발전하고 성장했다고 하면, 저는 지금쯤이면 콜롬비아를 좀 도와 콜롬비아의 경제발전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에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라고, 괜찮은 나라라고 설명해봐야 잘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잘생겼다고 해봐야 그냥 웃고 말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괜찮아요.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대한민국 사람의 입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콜롬비아라는 나라를 우리의 친구로 만들어서 중남미 전체에 콜롬비아가 우리의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기에 콜롬비아가 가장 적합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를 본 사람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 엄청난 변화를. 그래서 저는 콜롬비아에 있을 적에 고위층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콜롬비아에 왜 코이카(KOICA)가 없냐,

코이카를 만들어 달라. 페루에는 있었는데 콜롬비아에는 없었어요. 그리고나서 코이카가 바로 설치가 됐죠. 그래서 저는 결초보은이 이것이다. 제가 콜롬비아 국회에서 연설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여태까지 우리도 가난해서 콜롬비아를 못 도와줬는데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잘살게 됐으니까 당신들이 우리 어려울 때 도와준 것처럼 당신들에게 보은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필요한 것, 저는 주로 IT와 교육이라고 생각했죠. 대한민국이 교육과 IT를 통해서 발전했으니까 그 분야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콜롬비아가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인구와 자원에 비교해보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개발이 덜 된 나라입니다. 특히 동부지역에는 석유가 많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중남미에서 석유가 제일 많은 나라가 베네수엘라에요. 그다음에 에콰도르. 그런데 그사이가 끊어져 있겠어요? 안데스로 이어지는 석유 라인이거든요. 콜롬비아도 석유를 수출해요.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개발을 못 해요. 게릴라나 패러밀리터리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전쟁이 끝나면 그게 다 개발된다고 봐요.

이재학: 제가 콜롬비아 평화협상과 관련해서, 산토스가 왜 평화협상을 했는지 기억이 났어요. 산토스 정부가 저한테 요청한 게 있어요. 지금 콜롬비아의 국가 목표는 라틴아메리카의 허브인데, 허브가 되려면 치안이 확보돼야 하고, 두 번째 사회안전망을 구축한 다음

에, 기간산업, 인프라를 깔아야 해요. 그리고 석유가 있는데, 석유는 이미 게릴라가 장악한 지역에서 철수하고 있고요, 지금 상당수 금광이나 콜탄이나 에메랄드 광산은 정부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콜롬비아가 석유를 못 파는 이유가 라틴아메리카 석유는 미국밖에 수입을 안 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중국밖에 수입을 못 합니다. 라틴아메리카 석유는 한국기업이 활용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라틴아메리카 석유는 중질유이고 중동 석유는 경질유에요. 다시 말해서, 필터링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중동 석유는 운송 거리가 짧죠. 콜롬비아나 베네수엘라 쪽도 한국의 SK에 석유를 팔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못 팔았던 이유가 아시아 어느 국가도 라틴아메리카 석유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파나마운하는 100만 배럴짜리 배 밖에 통과를 못 해요. 그런데 유조선 용량은 보통 200만 배럴이거든요. 그리고 에메랄드 광산 같은 게 정부 손에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제가 1988년에 콜롬비아에 있었는데, 에메랄드 가격이 굉장히 쌌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이아몬드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비싸요. 보석상에 가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에메랄드 보석이 없어요. 없는 이유가 1990년대, 2000년대까지 마피아와 게릴라가 에메랄드 광산을 장악해서 자금 마련을 위해서 에메랄드를 많이 유출했었는데, 지금은 콜롬비아산 에메랄드 공급이 통제되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엄청 올랐고요. 그런 게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기현: 예, 좋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많은 줄 압니다만, 이렇게 해서 “콜

롬비아 국민들은 왜 평화를 거부했나?”를 주제로 한 이번 시사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토론자분들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